

탈(脫)종교 시대, 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유성호(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1. 미학적 사각지대

‘식민지’와 ‘분단/독재’로 얼룩진 20세기 한국 현대사는, 그에 대한 대안적 유토피아로서 ‘해방’과 ‘통일/민주화’를 줄곧 꿈꾸어왔다. 그만큼 ‘해방’과 ‘통일’, ‘민주화’라는 근대적 과제는 우리 민족사에서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으면서 추구되어왔다. 자연스럽게 문학에서도 자율적이고 심미적인 형식 미학보다는 ‘지사(志士)’형으로 불리는 실천적인 저항 미학이 우위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정신사 중심의 문학을 가능케 한 직접적인 내인(內因)이 되었다.

그에 따라 ‘친일’이나 ‘관변’ 미학은 자연스럽게 평가 절하되었고, 윤리적 엄결성이나 저항 정신은 가장 보편적인 민족의 사표(師表)로 부각되었다. “부족방언의 마술사”로 불리는 서정주의 현란하고도 완성도 높은 시세계가 그의 친일적·권력 지향적 행보에 묻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거나, 아직도 시사(詩史)의 주류가 ‘신채호-한용운-이육사-윤동주-신동엽-김지하-김남주-박노해-백무산’으로 이어지는 ‘저항’의 정신사를 통해 순금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 명료한 실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현대문학에 고유하게 생겨난 미학적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초월’ 의지나 ‘신성(神聖)’의 발현을 기저로 하는 이른바 ‘종교적 상상력’의 영역이다. 물론 이 같은 문학적 지향은 숭한 근대적 과제들이 코앞에 산적해 있던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도피 심리나 현실 왜곡의 신비주의로 폄하되기 일쑤였고, 민족문학 담론으로부터도 제국주의의 자기 전개에 일조하는 움직임이라는 비우호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일고 있는 ‘근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일정한 반성적 움직임은, 초월적 실재에 대한 추구와 현실적 안목이 통합된 이른바 ‘종교적 상상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 상상력’이 깊이 침윤된 작가나 작품들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를 통해, 우리의 삶과 내면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숨쉬고 있는 신성 혹은 초월적 가치에 대한 미학적 감각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2. ‘내면의 진공’과 그 대안으로서의 ‘종교적 상상력’

최근 우리 사회는 근대성의 핵심이랄 수 있는 기계론적 세계관, 진보적 시간관(觀), 생산 제일주의, 계산적 이성의 지배 등에서 한치도 자유롭지 못한 근대 자본주의의 정점에 와 있다. 그 자본주의를 심층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자본-기술’ 복합체는 이제 인간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규율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 발전 논리를 갖는 자율적 존재가 되었다. 최상의 수행성이 최선의 가치로 군림하면서 ‘영구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끝없는 새로움의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사회학자 기든스(A. Giddens)의 말대로 ‘탈근대(post modernity)’가 아니라 ‘급진화된 근대

(radicalized modernity)’로 불리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 ‘자본-기술’ 복합체의 멈출 것 같지 않는 아찔한 증식 속도 때문이다. 따라서 이 멈출 줄 모르는 가속도는 지금 시대가 근대의 황혼이 아니라 근대의 절정이고, 온갖 이성의 책략들이 벌이는 문명의 축제 기간임을 가리킨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견고한 기율과 이성 중심의 세계에 대하여 일정한 항체(抗體)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원과 실존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현하는 데 불가결하다는 것은 이제 체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가 말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의 심층적 차원에 존재하는 궁극적 관심”으로서의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근대의 정점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내면의 진공(inner void)을 치유하고 보완하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종교적 상상력’의 가치와 의미를 준별하게 해준다.

사실 이성과 문명의 극점에 서 있는 현대사회에서조차 개별적인 인간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투명하며, 인간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얻는 것 사이 혹은 당위와 실제 사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긴장은 여전히 강렬하게 존재한다. 이 긴장과 갈등이야말로 종교의 발생의 근원이라고 말한 종교학자 해밀턴(Hamilton)의 시각을 참조할 때, 우리는 그 동안 합리성 혹은 근대성의 신화 속에 갇혀 있던 초월적 실재에 대한 감각과 영성의 깊이 그리고 실존의 시원(始原)에 가 닿고 싶어하는 인간의 종교적 상상력을 문학이 담아내야 한다는 근대 극복의 과제와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학이 담아내야 하는 ‘종교적 상상력’이란 무엇을 함의하는가.

대개 인간의 ‘종교적 상상력’은 두 가지 층위에서 발원되고 결정(結晶)되고 실현된다. 그 하나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자아의 감각 및 인식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 존재(혹은 궁극적 실재, ultimate reality)’에 대한 열망과 동일화 추구에서 발원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그와 반대편의 것으로서 지상적(地上的) 인간으로서의 현세적 욕망의 실현 의지와 연결된다. 전자가 인간이 숙명적으로 갖는 물리적·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온전한 상태나 근원적 세계를 바라는 초월 혹은 성화(聖化)의 의지와 관련된다면, 후자는 인간 사회에서의 윤리적·생활적 갱신 의지와 깊이 맞물린다. 물론, 후자의 경우, 현세적 기복의 욕구가 기초적인 보상 심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동체적 사랑의 실현이라든가 선(善)의 구현 같은 가치들도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이러한 ‘종교적 상상력’ 이룰테면 영원에 대한 추구, 신성의 지상적 복원에 대한 의지, 초월 의지, 영성에 대한 내밀한 감각과 그것의 추구, 사랑의 구현, 그리고 모든 불가시적 세계에 대한 견자(見者)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지향성 등의 문학적 수용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우리의 탐구 과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그러한 종교적 욕망과 의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형상화될 때는 대개 문학적 언어의 형식을 띠게 됨으로써, ‘문학’과 ‘종교’는 매우 밀접한 언어적, 구조적 상동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문학의 언어가 제한된 물리적 언어 구조를 통해 근원적이고 불가측한 인간의 욕망이나 세계의 실상 혹은 그 이면에 살아 움직이는 세계를 파악하려는 충동으로 가득하다는 점에서, ‘문학’과 ‘종교’의 근원 탐구적 성격은 짙은 상호 연관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상상력’에 대한 탐색과 추구를 통해 근대의 전개 과정에서 밀려난 이성(理性)의 타자들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서구 정신사의 전통인 이성적인 계몽의 방법을 종교 정신의 연장선으로 파악한 이는 융(C. G. Jung)이었지만, 우리가 탐색해야 할 것은 그러한 성격의 서구적·역사적 기독교가 아니라 인간과 우주의 근원에 대한 궁극적 관심으로서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양적 사유에 대한 강조나 인식론적 전회(轉回)의 징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대에, 단절

과 막힘의 역사를 지나 소통과 순환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이성의 타자로서의 ‘종교적 상상력’은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은 피안과 비의(秘義)의 세계로의 도피라는 근대가 부여한 수세적인 오명을 벗고, 근대의 항구적 타자들에 대한 공감으로 인간과 우주의 심층적 차원을 제시하는 대체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의 근원을 탐색하면서도 인간의 내면과의 접점을 통합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종교적 상상력’의 극점을, 1990년대의 대표적 시인인 고진하와 작가 이승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신성의 편재성을 바라보는 ‘눈’ - 시인 고진하의 경우

사제(司祭) 시인인 고진하(高鎭河)의 시는 서정시가 구축할 수 있는 종교적 상상력의 독자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에 속한다. 우리 현대시의 역사적·논리적 자장을 분할해왔던 ‘리얼리즘/모더니즘’의 미학적 분법으로는 포괄해내기 어려운 그의 시는 ‘관념’의 천착을 통하여 ‘존재’의 본질에 다다른 제3의 미학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그만큼 그의 시는 언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또는 ‘시원(始原)’에 대한 근본적인 사색을 감행하고 있다. 그와 같은 작업이 종교적 관념과 감각의 토대 위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고진하 시의 가장 커다란 진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세계가 첫 시집 『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1990)부터 『프란체스코의 새들』(1993), 『우주배꼽』(1997)에 이르기까지 지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진하의 시적 방법론은 사물의 내면에서 웅얼거리는 ‘신성의 편재성(遍在性)’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일상과 격절된 천상의 신성도 아니고 역사의 한가운데서 싸우는 참여적 신성도 아닌, 우리의 일상과 역사 혹은 사물의 틈새마다 말갭게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신성의 숨길을 그는 평범한 사물과 일상사에서 바라보고 간취하고 의미화하고 있다.

어제 말갭게 닦아놓은 향아리들을/어머니는 오늘도/뒹고 또 뒹으신다/지상의 어느 성소인
들/저보다 깨끗할까/맑은 물이 똑똑 흐르는 행주를 권/주름투성이 손을/향아리에 얹고/세레
를 베풀듯, 어머니는/어머니의 성소를 닦고 또 뒹으신다

-- 「어머니의 聖所」 중에서

이 시는 하이데거(M. Heidegger)가 재차 인용한 뢰를린(Hölderlin)의 물음 곧 “신이 부재한 시대에 시인의 몫은 무엇인가”에 대한 형이상학적 응답의 가능성으로 입을 만하다. 그것은 “파란 하늘빛을 뺄에 비벼 설세없이 퍼먹는 저 몸짓은 차라리 성스럽기까지 하다”(「붉은발농개」)고 느끼는 감각과 상통하는데, 이때 어머니의 성소 곧 일상적 삶의 현장으로서의 장독대는 “이미 지상에서 사라진/聖所를 세우고 싶은 곳”(「즈르마을 1」)이 된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성이 사라진(또는 은폐된) 것은 “저濁한 인간의 웅성거림들”(「사향제비나비」) 또는 “질척거리는 物慾의 어둠”(「장님굴새우」) 때문인데, 시인은 그 잃어버린 신성을 매우 사소한 어머니의 “주름투성이 손”의 놀림에서 찾는 것이다.

원래 ‘신성함(The sacred)’이란 그 자체가 “우리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nobis sepositum)” 속성을 근본으로 띤다. 특히 종교적 거룩함을 엿본 사람은 그 특유의 배타성과 고립성을 자초하기 쉽다. ‘체

협'이라는 것은 준(準)절대적 성격을 띠게 되고 체험자에게 배타성과 우월성을 부여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聖)'이라는 것이 절대 개념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이되는 상대 개념이라는 것에 눈뜬 사람은 종교적 국량(局量)에서 폭이 넓기 마련이다. 종교적 인간이 세속적 경험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양식과 다른 존재이기를 소망하는 것과는 다른, 세속적 상태 속에서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신성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고진하의 신성 인식은 그 같은 폭과 깊이를 아울러 갖고 있다.

이 같은 그의 종교적 폭과 깊이는 “새벽 명상을 하다 문득 天上에선 듯 쟁쟁하게 울려오는/새소리”(「프란체스코의 새들」)를 듣는 ‘귀’와도 연결되는데, 그러한 감각적 열림이 ‘성/속’의 해묵은 이분법을 허물어뜨리는 힘을 시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신성의 편재성’을 시 속에서 복원하는 일은 고진하 시의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폐허의 담벽 아래,/성스런 신의 병사들이/지구의 왼쪽 관자놀이를 찢는 총성이 울리고/그
피와 살을 받아 앓는/시퍼런 잡초와 갈가마귀의 혀가 비릿하다.//골고다,(우주배꼽?)/거기/
여전히 신생아들의 울음소리도/들린다지?//안 보았어도 좋을, 흥건히 피에 뜬 조간을 보며/
질긴 땀줄을 씹듯 간신히 조반을 삼켰다./장마가 쉬 그칠 것 같지 않다.

-- 「장마」 전문

이 시인이 이 세상의 폐허를 건너는(또는 건디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시원’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상상력에 있다. ‘시원’은 사실 근본적이지만 추상적인 실재이고, 현실은 현상적이지만 구체적이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들리는 내분과 전쟁의 소식은 구체적 폭력의 양상이지만, 시인에게 그 “흥건한 피”들은 “신생아들의 울음소리”라는 비폭력과 생명의 힘에 의해 상쇄되기도 남음이 있다. 이 시의 괄호 속에 갇힌 “(우주배꼽?)”이라는 비유는 시원을 향한 그의 형이상학적 열정이 잘 응축된 형상인데, 폭력의 현장을 오히려 신의 로고스(logos)로 뒤집어 보는 상상력이 바로 그의 종교적 상상력의 실제적 힘임을 말해준다.

세계의 근원에 대한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 그것은 ‘존재-존재자’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 관심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비롯한 모든 현상들을 서로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존재자로 보게 하고, 존재자들을 있게 하는 원인을 존재 자체로 보게 만드는 세계관적 전체에서 가능한 것이다. 거기에 ‘신앙’이라는 인식 및 행위가 개입할 경우 그 ‘존재’는 전지전능한 신 곧 우주 주재의 원리이자 실체가 되는 것이다. 고진하의 시는 그 ‘존재-존재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세계이다.

그래서 고진하의 시는 사실적인 인과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사물들 사이의 전체적 연관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존재자’를 통한 ‘존재’의 광휘가 외롭게 빛나고 있다. 그에게 ‘종교적 상상력’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값에 대하여 깊이 묻고 따지는 데서 생기는 인간 실존의 한 사건이며, 그러한 자기응시의 시선이 타자들을 향해 확장되어가다가 마침내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원형 회귀의 회로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듯 고진하가 보여주는 ‘신성의 편재성’ 발견과 ‘시원’을 열망하는 세계는 우리 문학에서 가장 이채로우면서도 생동감 있는 ‘종교적 상상력’의 실례가 될 것이다.

4. 신성과 이성의 통합 - 작가 이승우의 경우

작가 이승우(李承雨)는 종교적 사유나 관념적 주제의 축적이 빈곤하기 짝이 없는 우리 소설사에 종교 의식과 감각을 프리즘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관념의 친착에 남다른 열정과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문단에 이채로운 존재로 우뚝 서 있는 중견 소설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를 ‘종교 문학’의 외연과 내포를 확장하고 심화한 작가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원래 ‘종교적 상상력’이 지향하는 고전적인 구도는 이른바 ‘수직성(실존적 자아)’과 ‘수평성(사회적 자아)’의 갈등 및 조화일 것이다. 그것을 일러 ‘신 중심/인간 중심’, ‘복음주의/현실참여주의’의 갈등과 조화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승우의 소설적 관심은 이러한 양극의 가치가 지니는 갈등 및 조화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소설에서는 종교 지향의 작가들이 으레 가질 법한 신성에 대한 헌신과 찬양, 그리고 그로 하여 빚어지는 감상 과잉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럼 점에서 그는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사유에 기반을 둔 ‘관념’의 작가이다. 그는 ‘성’과 ‘속’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성의 하나님”(『향기로운 세상』, 1991)이라고 믿고 있다. 그만큼 그의 ‘종교적 상상력’은 세상과 절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타자를 향해 한껏 열려 있다.

실제로 이승우의 소설은 삶의 여러 속성이 부딪치는 자리에서 태어나고 있지만, 그는 그 쟁점들을 단 일하고 완결된 해답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 이성주의 혹은 합리적 관념성 같은 말로 호명(呼名)하는 일은 그래서 자연스럽다. 그리고 보면 예수가 사람과 신의 중간적 존재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참다운 통합체였듯이, 이승우에게 있어 삶과 죽음, 성과 속, 초월과 참여, 수직성과 수평성은 모두 하나의 개체 안에 통합되어 있는 상보적인 인자(因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쓰인 그의 초기 대표작이 「못」(1987)과 「고산지대」(1988)이다. 현실적 고난과 그것의 신앙적 대응 그리고 어느 편에도 절대적 확신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인간들의 욕망과 힘겨운 삶이 짧은 분량의 작품들 안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 두 작품은, 초월의 의지와 현실 개조의 요청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신학생으로서의 작가의 상(像)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그의 이렇듯 견고한 균형 감각은 최근 그의 소설에 두 가지 경향을 가져다주는데, 하나가 소설집 『미궁에 대한 추측』(1994)에 줄곧 반영되었던 세속적 권력과 폭력에 대한 집요한 비판과 풍자라면, 다른 하나는 장편소설 『내 안에 또 누가 있나』(1995) 등에 담긴 독(毒)이 퍼져 있는 세상, 곧 악마의 얼굴을 한 세상에 대한 근원적 비판이다. 그에게는 언어 예술로서의 소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실천력이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인간 사회에 미만(彌滿)해 있는 온갖 폭력과 통제 메커니즘을 그 내부로부터 해체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소설적 반증이 이 작품들인 셈이다.

물론 이 같은 소설적 경향이 이른바 희망없는 염세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는 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상한선도 없이 무한 질주하는 인간의 욕망을 주된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그의 작가적 본령이 이러한 ‘선협적 악마성’에 대한 친착을 불러왔던 것으로 보아야 알맞을 것이다. 그것이 그를 리얼리즘의 작가로도 볼 수 있게 하는 원인(遠因)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비판적 의식은 『목련공원』(1998)에 오면 인간의 내면에 대한 탐구 쪽으로 현저한

경사를 보이며, 그의 오래된 주제인 ‘신성’과 ‘초월’에 대한 중층적인 질문을 불러온다. 그런 점에서 『내 안에 또 누가 있나』(1995)의 주인공과 그의 출세작인 『생의 이면』(1992)의 인물은 이미 하나의 몸이다. 『생의 이면』의 화자가 종단이라는 여성을 통해 변화되기 이전의 존재, 곧 신성을 만나기 전의 인물이 바로 『내 안에 또 누가 있나』의 주인공 임혁의 초상일 뿐이다. 그만큼 이승우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양한 것이고, 인간들 또한 하나의 이념으로 전유할 수 없는 다양성과 풍부함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소설 『가시나무 그늘』(1991)을 독자들이 ‘광주’라는 역사적 문제로 읽든지, 아니면 존재론적인 문제로 읽든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신화(『에리직톤의 초상』, 1981)와 현실(『내 안에 또 누가 있나』)의 중첩을 통해 현실과 근원을 복합적으로 통찰해온 이승우의 작가적 행보는 그래서 ‘신성과 이성의 통합’이라는 그의 소설 철학을 담아간 역정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최근 펴낸 『내 영혼의 지도』(1999)라는 이스라엘 기행문집은 그의 이 같은 작가적 본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 자신의 영혼의 지도이기도 한데, 이 책은 그의 전 작품을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신성과 이성의 통합 문제, 곧 이승우의 문학적 본령을 드러내고 또한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관념소설로서의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했던 이승우는 이미 한국 소설이 결여해왔던 중요한 빈터를 보강해준 중요한 소설가로 문학사에 기록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조차 신의 계시라는 인식과, 이성과 내면을 통해 신의 의지와 숨결을 읽으려는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승우를 통해 우리 문학에서 가장 빈곤한 영역인, 형이상학과 서정성 그리고 현실주의가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5. 탈종교 시대, 문학의 미래

‘문학’은 인간의 감정 양식을 중시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다루는 반면,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멀리하고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실재를 바라본다. 그만큼 양자는 일정한 구조적 상동성에도 불구하고 결합하기 힘든 고유한 내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내적 논리의 상이성이 이 두 가지 층위가 결합되었을 때의 폭발적 힘을 역설적으로 암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이 종교의 교의(Dogma)를 대변해서도 안 되지만, 종교의 핵심적 성격을 간파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이 점에서 신비평가인 브룩스(C. Brooks)가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 작품들을 논하고 있는 책 『숨은 신(The Hidden God)]에서 의도적으로 공인된 기독교인이 아닌 헤밍웨이나 포크너, 에이츠, 워렌 등의 작품을 종교 문학의 실례로 들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작가의 신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종교의 내적 논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그와 같은 서술을 낳은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은 ‘과학-기술’ 복합체가 구축한 신전에서 치르는 희생 제의에 비유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변체물이 된 것이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율성과 온갖 신성한 것들의 가치일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모순을 관계에 있는 양극의 가치이다. 근대적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신성의 빛은 아래지는 법이고, 신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근대적 주체가 부정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체의 자율적 시각과 강렬한 근원 탐구의 의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근대 미학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공히 근대적인 주체 중심주의에 의한 인식적·미학적 주체 정립을 욕망한 산물이라면, 이제는 이성의 타자로서의 종교 의식(儀式), 현상, 경험, 지각, 상징 체계 등에 대한 관심을 본격화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의 원리의 하나로 각인하고 그것에 일정한 준거의 위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칸트(I. Kant)가 “인간의 이성은 어떤 종류의 인식에 대해서 특수한 운명을 담당하고 있다. 곧 이성을 물리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운명이 그것이다. 물리칠 수 없음이란 이런 문제가 이성의 자연 본성에 의해 이성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답할 수 없음이란, 이러한 문제가 인간 이성의 일체의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이다.”(『순수이성비판』)라고 말했을 때, 이성의 비극적 운명을 넘어서실 가능성을 주는 것이 바로 ‘종교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교적 경험’이란 우리들의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반응이고, 이 경험은 지성이나 정서, 의지 중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인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의 개입 없이 신을 대체하고자 했던 근대의 이성 중심주의(logo-centrism)는, 알랭 투렌(Alain Touraine)이 말한 종교의 ‘고립화’ 혹은 ‘소외(isolation)’를 가져왔고,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텍스트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최상층에서 텍스트의 권위를 보장해주던 성스러운 언어(말씀, Word)의 권위는 가차없이 부정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천상의 형이상학의 권좌에서 내려와 인간적 현실과의 접점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유행적인 탈(脫)주체 담론에 편승하여 미학적 무정부주의에 빠지지 말고, 근대의 타자로서 억압받았던 가치들을 복원함으로써 새롭게 미학적 주체를 갱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영성 혹은 종교와 이른바 ‘대화적 관계’를 창출해야 한다. 신화비평가인 프라이(N. Frye)가 문학을 ‘세속적인 경전(The Secular Scripture)’이라고 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일 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탈(脫)종교 시대에, 고진하가 바라보고 있는 ‘신성의 편재성’이나 이승우가 추구하고 있는 ‘신성과 이성의 통합’으로서의 상상력 같은 지향을, 우리 현대인의 결여태를 위한 강력하고 근원적인 하나의 수원(水源)으로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그러한 탐색의 방향이 미로에 빠진 우리 문학의 적층(積層)과 미래를 위해서 이제, 긴요하게 요청된다.